



2023. 6. 20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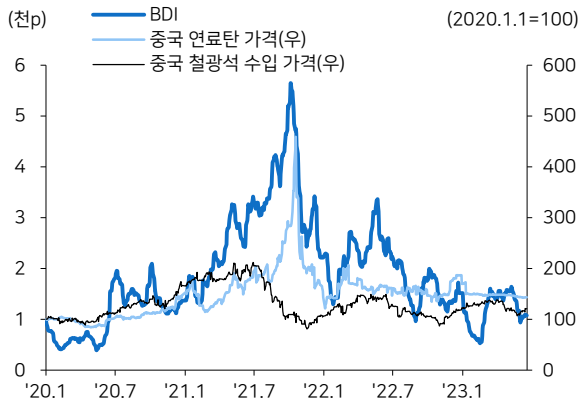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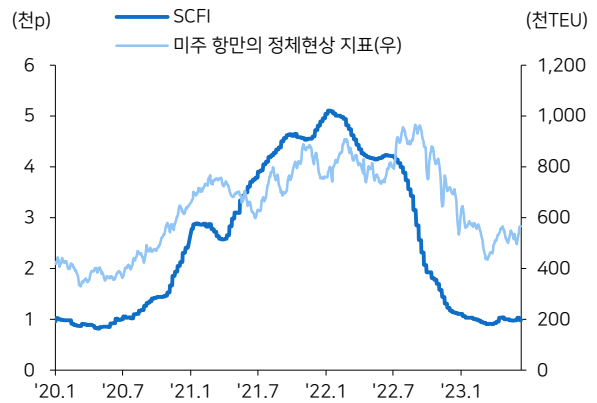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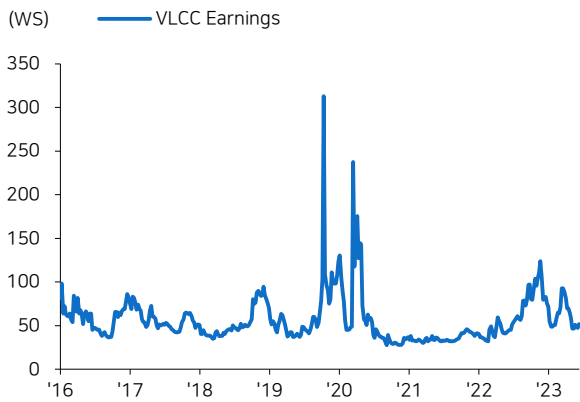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065.0p(-1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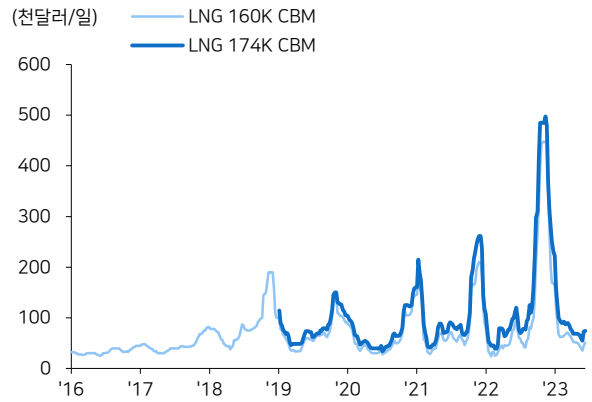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34.3p(-45.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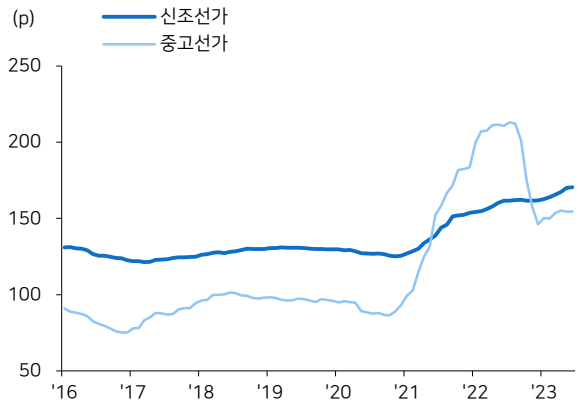
VLCC Spot Rate 82.9p(+31.4p WoW)



LNG Spot 운임 61.3천달러(+10.0천달러 WoW)
80.0천달러(+5.8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70.8p(+0.3p WoW)
153.5p(-0.6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73.0달러(-2.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글로벌비스, 물류자동화 SW 전문기업 '알티올' 인수

현대글로벌비스가 국내 물류 자동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알티올'을 인수했다고 보도됨. 투자 금액과 세부 계약조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짐. 기존 물류 현장에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려면 물류센터 운영을 잠시 멈춰야 하지만, 알티올은 국내 최초로 운영 중단 없이 소프트웨어를 재구축·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생산성을 최대 30%까지 향상시킨 바 있다고 언급됨. (연합뉴스) (<https://shorturl.at/cnFJ8>)

해운 강자들 VLCC 발주에 정성

그리스 해운사들이 VLCC를 발주하기 위해 중국 조선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됨. Dynacom Tankers Management는 320,000DWT 재래식 연료 추진 VLCC 최대 4척을, Capital Maritime은 LNG 또는 재래식 연료 엔진을 장착하는 DF VLCC 최대 4척을 원한다고 언급됨. Dynacom의 선가는 척당 약 1.15억달러로 납기는 '26년말~27년 사이로 언급됨. Capital Maritime의 LNG DF VLCC 선가는 1.25~1.30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짐. 가격 경쟁력을 지닌 중국 조선소에 VLCC 발주 문의가 쏠리고 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https://shorturl.at/ptuDV>)

VLCC rates 'skyrocket' past \$100,000 as long-haul bookings jump

물동량이 증가하며 VLCC 운임이 현대 탱커 기준 100,000달러/일을 초과했다고 보도됨. 중동걸프만 지역에서 6월말 성약이 급증했고, 대서양 long-haul 성약도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됨. 7월에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의 100만배럴 감산에도 성약 증가로 시장 수급이 타이트해졌다고 언급됨. (Tradefwinds) (<https://shorturl.at/xBDQU>)

Methanol dual-fuelled ship orders spike to close gap on LNG, Clarksons says

선주들의 메탄올 DF 선박 발주건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됨. 5월 31일 기준 156척, 즉 1,010만GT가 발주되었다고 알려짐. 그 중 40%인 42척이 2023년에 발주되었다고 언급됨. 전체 대체연료 선박 중 34%에 해당된다고 알려짐. LNG DF가 여전히 가장 인기인데, 55%에 해당된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shorturl.at/kAKNS>)

LNG carrier rates tip upwards as charterers thoughts turn to winter

겨울 수요를 대비하며 LNG선 Spot운임 및 용선료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됨. Affinity LNG에 따르면 2-stroke LNG선 기준 대서양·태평양·중동 지역 운임이 20% 상승했다고 알려짐. Tri-fuel 디젤-전기 선박 spot 운임은 대서양 지역에서 33% 상승했다고 알려짐. 겨울을 앞두고 선박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운임이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shorturl.at/oAJQR>)

유럽 가스 가격 다시 치솟는다...이달 들어 52% 급등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6월 중순까지 52% 급등했다고 보도됨. 메가와트시당(MWh) 35유로를 기록했다고 알려짐. 2022년 여름 에너지 가격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고 언급됨. 노르웨이의 주요 가스 발전소의 유지보수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져 생산 중단이 발생함에 기인한다고 설명됨. 계획된 가스 발전소 하나의 폐쇄는 7월 15일까지 연장, 다른 두 개의 가스 공장은 무기한 발전 정지를 공지한 바 있음. (뉴스1) (<https://shorturl.at/bjlmE>)